

정유기업, 미국 MTBE 정화비용 부담

정유기업, 17개 주 153개 수원지에 4억2200만달러 ... ExxonMobil 불참

Chevron과 BP(British Petroleum) 등 정유기업들이 미국에서 발암의심물질 휘발유 첨가제 MTBE(Methyl Tertiary Butyl Ether) 정화비용으로 4억2200만달러(약 4400억원)를 부담하게 됐다.

정유기업들은 MTBE 오염이 확인된 미국 153개 수원지의 정화 비용을 부담하기로 17개 주 정부와 합의했다.

또 정유기업들은 앞으로 30년간 다른 수원지에서도 MTBE 오염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수원지의 정화 비용 가운데 70%를 지불해야 한다.

MTBE는 휘발유의 산소 함유량을 높이고 연소과정에서 대기오염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1979년부터 휘발유 첨가제로 이용됐으나,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토양에 이어 식수원까지 오염시키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2006년부터 일반 사용이 전면 중단됐다.

미국에서 MTBE 오염피해를 입은 수원지는 주로 북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고, 관내 500개 취수지 가운데 100여개가 오염된 것으로 알려진 뉴욕 서포크 카운티는 가장 많은 7340만달러의 정화비용을 정유기업들에게 부과할 방침이다.

ExxonMobil을 비롯한 일부 정유기업들은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09>